

Community News

봉사부 탐방기 <결혼봉사 사역팀>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식을 위해



인터뷰 당일, 그 날도 한 커플의 아름다운 결혼식이 거행되고 있었다.

성스럽고 아름다운 결혼식이 진행되는 순간에도 원활한 결혼식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 결혼식 봉사 사역 팀을 오랜 기다림 끝에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Q. 결혼 봉사 사역팀은 주로 어떤 봉사를 하시나요?

매주 토요일 예식이 있는 각각 2시 반, 5시 반에 1시간 전에 나와서 결혼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시작되면, 하객들을 안내하고, 결혼식 순서지를 배포해 드립니다. 또

한, 목사님의 예배인도도 준비합니다.

Q. 봉사를 통해 보람이나 감사한 점이 있으신지요?

예전에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이 교회가 예배다면서 다니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실제로 결혼 봉사를 통해 전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봉사를 통해 길 잃은 어린양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가족이나 자녀는 아니지만, 딸 혹은 아들을 시집, 장가 보내는 기분이 들어 설레고 또한 아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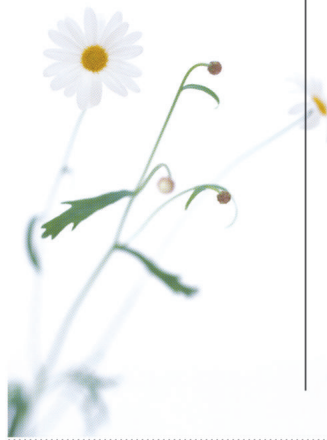
Q.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있으신가요?

다 눈에 아른거리고 기억도 나지만 특히, 목사님의 아드님이 결혼식을 여기서 진행했던 것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같이 봉사하시는 분 중에 자제분이 결혼식을 했었는데 너무 아름답고 감동받아서 봉사에 참여하게 된 분도 있습니다.

Q. 결혼식에 참석하는 성도 및 하객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하객들이 원활한 결혼식을 위해 저희의 안내에 따라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티켓도 지켜주셔서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축복된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하객들이 노력하여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편집부



주님의 people 박오호, 윤초자 성도

아름다운 봉사의 손길



「경로식당」 개설 18개월이 되는 5월말 현재 연 인원 '일만 명'을 상회하였으며, 이를 위해 7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짝수 월에만 행하는 합동 생일 잔치 등 실비공동작업장 운영하며 실비공동농장에서 직접 가꾼 싱싱한 유기농채소로 운영한다.

주중에는 여가 활동으로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께서 이 같이 섬기는 분들은 복이 많은 분들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항상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계신다고 전한다

서정하 기자



교회창립음악회 연주회 현장

주님의교회 창립21주년을 맞아 2부 시온성가대가 모차르트의 대관절 곡으로 6월 23일 수요일 대예배실에서 찬양한다.

시온성가대는(대장 박인호 안수집사) 교회창립음악회를 주말과 주일 밤늦도록 연습하는 대원들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면서 주님의 성도들이 이웃과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리기를 바란다고 한다.

임연옥 기자

작은모임 큰맘을 겨자씨 모임



2009년 5월 8일(금) 첫 모임에 장소

를 제공해주신 집사님께서 30여 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본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오늘이 처음이라며,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겨자씨 모임이 끝나고 다과 시간에는 한 집사

님께서 달걀꾸러미 1묶음을, 한 권사님은 작년에 지은 농산물이라면서 콩을 한 봉지씩 각 가정에게 선물하는 것이었습니다. 겨자씨 모임에 사랑의 달걀꾸러미 그리고 콩..

알이 부화해서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콩처럼 썩어 나빠서 무럭무럭 자라 풍성한 구역으로 성장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 묵상해 보았다.

6-23구역 장승수 집사

너는 밭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고 밭에 오래 참음과 기쁨으로 경배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딤후 4:2)



[오늘의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1

통 권 제 250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9년 6월 14일

함즐함울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6월은 호국보훈의 달

기꺼이 한 몸 던지던 애국선열들의 마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소서...

59년 전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김일성이 이끄는 북한이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전면적인 기습 남침을 감행하여 동족상잔의 전쟁을 일으킨 비극의 달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을 기리는 것은 6.25 전쟁을 기억하고 앞서 가신 분들을 추모하며 그 바탕 위에서 6.25 전쟁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유비무

환의 대비를 하자는 국민적 의지를 다짐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호국 그리고 산업발전의 일선에서 책임을 다하시다가 고귀한 생명을 나라에 아낌없이 바치신 애국선열과 전몰장병들의 충절을 추모하며 현충의 달을 맞이하여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

기에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 지켜주신 조국 대한민국이 시대적으로 여러 어려운 시련에 봉착하고 있는 현실 앞에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과 그리고 정치인들의 정치인들도 한마음 되어 우리도 기꺼이 한 몸 아낌없이 던지던 애국선열들의 마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소서. 그리하여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서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온 국민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최혜원 기자

1988년6월26일 교회창립 | 창립기념주일: 2009년6월28일

창립 21주년 기념예배

21주년 수요찬양예배(24일 7:30pm, 시온찬양대) | 창립주년 임직식: 28일 대예배실(4부)

중 고등부 연합예배	2면
선교지에서 온 편지	3면
봉사부탐방_결혼예식팀	4면
주님의피플_박오호·윤초자 성도	4면



2009, 중고등부 연합예배

하나님의 기쁨 팝콘트리! 하나님의 희망 비전트리!

5월 31일 주일,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청소년 주일연합예배가 지하 중 예배실에서
드러졌다. 청소년, 교사, 부모, 약 600여명의 주님의 가족들이 참석한 이 날 예배에
서는 십대지기선교회 김진욱 목사가 '뜻을 정하여'(단 1:8-9)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
하고, 중등부 위심팀과 고등부 국악과 학생들의 공연이 특별순서로 진행되었다. 한 주
전 실시하였던 설문조사내용이 입구에 게시되었고, 그 내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 청
소년들의 신앙과 삶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었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제자와 스
승이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통해 주 안에 한 가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님의교회에는 청소년들이 있다. 오직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나라와 민
족, 이 시대와 세계를 짊어질 하나님의 다음세대가 있다. 이들을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한다. 임경순 전도사



중등부 위심팀장 김진욱 목사



김진욱목사의 주일연합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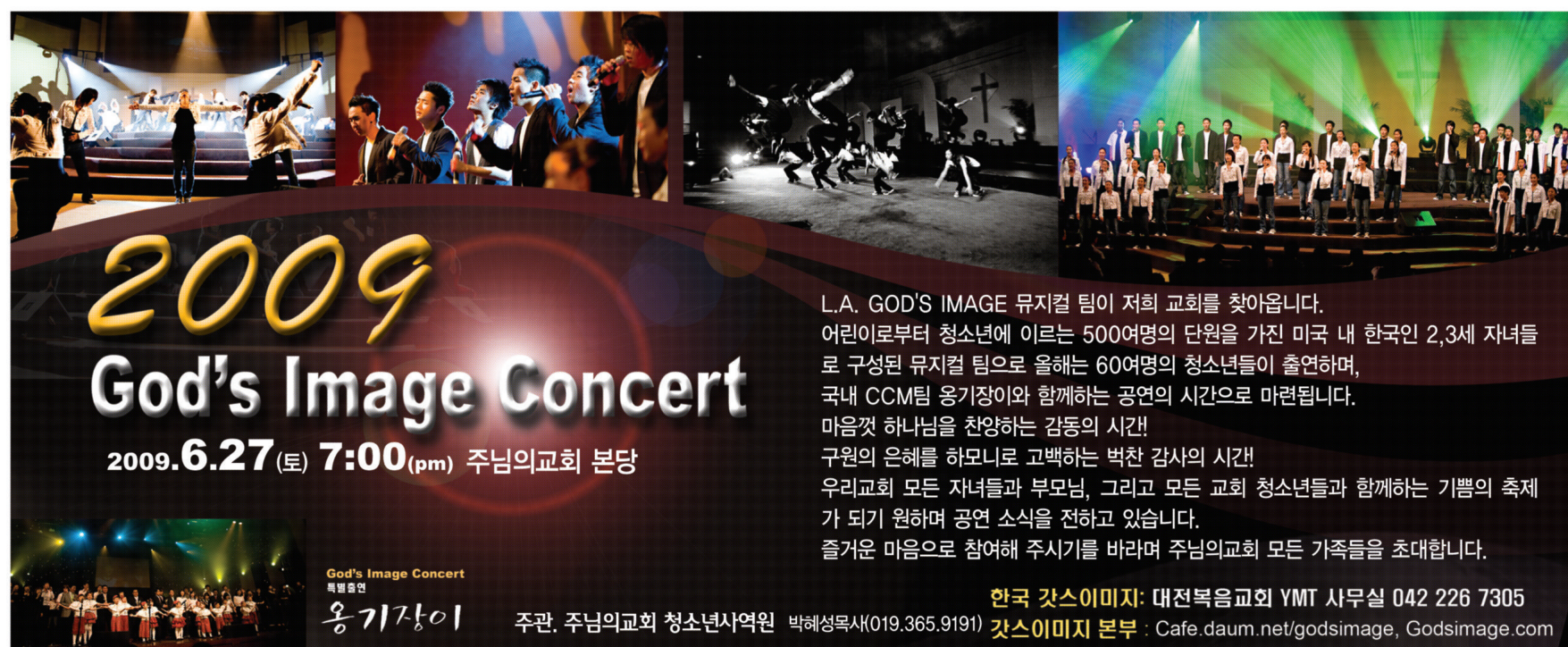
예배드리는 학생들의 모습



청소년들이 주일연합예배에 참가하여 기도하는 모습



중고등부 설문조사



2009 God's Image Concert

2009.6.27(토) 7:00(pm) 주님의교회 본당

L.A. GOD'S IMAGE 뮤지컬 팀이 저희 교회를 찾아옵니다.
어린이로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500여명의 단원을 가진 미국 내 한국인 2,3세 자녀들
로 구성된 뮤지컬 팀으로 올해는 60여명의 청소년들이 출연하며,
국내 CCM팀 웅기장이와 함께하는 공연의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동의 시간!
구원의 은혜를 하모니로 고백하는 벅찬 감사의 시간!
우리교회 모든 자녀들과 부모님, 그리고 모든 교회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기쁨의 축제
가 되기 위하여 공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의교회 모든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한국 갓스이미지: 대전복음교회 YMT 사무실 042 226 7305
웅기장이 주관: 주님의교회 청소년사역원 박혜성목사(019.365.9191) 갓스이미지 본부: Cafe.daum.net/godsimage, Godsimage.com

선교지에서 온 편지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5월 선교소식에 기도제목으로 올려드렸
던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들의 비자가 신속히 잘
처리되었습니다.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7월부터
한국에서 심장수술 비용이 인상되는 관계로 6월
중순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병원 측의 연
락으로 일찍 한국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6월
15일(월) 오전에 인천에 도착 후 바로 두 곳의 병
원(부천세종병원, 아산병원)으로 이동합니다. 이
번 초청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단기의료 선교를
다녀간 아산병원 의료진에 의해 수술 결정이 되
었고, 박인숙 교수님께서 여러기관을 알아보고

이 일이 성취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5명의 아동
과 어머니 5명, 저 포함 모두 11명이 함께 가게 됩
니다.

초청장은 기아대책기구에서 발급해 주었고,
모든 경비는 부천세종병원과 아산병원이 부담합
니다. 3명은 부천 세종 병원에서, 2명은 아산 서
울병원에서 진료 및 수술을 받게 되는데, 저는 아
마도 부천으로 이동하여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아산에는 KOICA 봉사단으로 왔던 자매가 있어
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체류 일정은 수술
이 양호할 경우 2주, 최대 3주를 잡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의 4개 군에 흩어져 사는
아동들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고, 가족들에게
구체적인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기대하면서 다녔습니다.
한국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010-6577-2860 감
사드립니다... 캄에서 김창숙 선교사 보냅니다.



호스피스 5월 월례회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도 구가 되기를...



주님의 교
회 호스피
스 사역 팀
에서 5월
31일 토요
일 퇴촌 느

티나무 전경 펜션에서 30여명의 봉사자들이
5월 월례회로 즐거운 교제를 가졌다.

이번 모임은 지난 여름 방문한 몽골에 있는
'그린 홈 호스피스센터'에서 말기 암 환자
사역을 하는 이경환 선교사 가정에서 참석하여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서로 기도를 하며 무릎 꿇고 환자들의 손
을 잡고 사랑이라는 강한 도구로 의미있는 귀
한 일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쓰시는 작은 그릇
이지만 남들이 외면하는 일들, 주님께서 기
뻐하는 일을 할 수 있음에 우리 모두들 아름
다운 동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
사했다.

아버지의 큰사랑이 위로가 되기를 소망할
게 해 주시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
록 건강을 주시고 우리들 모두 주님의 뜻대
로 스치는 바람처럼 그 사랑 우리 가슴에 화
살처럼 깊이 박히기를 치열하게 살아가기를
함심해 기도드렸다.

체온을 통해 남의 손을 잡아주는 일 우리를 필
요했고, 우리 또한 필요하다.

말기 암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을 위해 감당
하지 못할 일들 손수 보여주시는 봉사자들 호스
피스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도구이다.
주님의교회 호스피스 사역 팀에서는 10월 추
석 연휴에 몽골 호스피스봉사사역을 다녀올
예정이다.

호스피스 사역팀

주차안내 팀 야외 세미나

봉사와 섬김



초록 잎이 보는 우리들 마음에 싱그러운 젊음을 주는
듯 상쾌하다.

주차안내팀은 6월 6일(토) 남서울 전원교회에서 팀원
들이 가족과 함께 참석하여 즐거운 야외 세미나를 가
졌다. 준비한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 식사공동체와
보물찾기와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한마음 공동체의 시
간이었다.

박원호 담임 목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은사가 있는데 주차 안내팀들이 하는

봉사가 주님의 정신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하며 교
회사명을 위해 주어진 은사대로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높임 받는 자가 낮아지는 것을 알게 해주고 나보다 남
을 먼저 생각하는 봉사자가 되기를 바랬다.
주일마다 운동장과 뚝방에서 많은 차들과 교우들을 만
나며 더위와 먼지와 씨름을 하는 주차 안내팀...

나이가 많이 드신 봉사자 한분은 나이에 관계없이 주
차봉사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을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했다.

자연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심신이 재충전 되
는 느낌을 가진 즐거운 시간, 헤어짐이 아까운 듯 준비
해간 여러 선물들을 나누며 봉사자들 모두 믿음의 여
정과 봉사의 여정을 같이 걸어가고자 기도를 나누었
다.

주차안내팀

안수집사회 야외회

충성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그동안 PD40일 세
벽기도 차량안내, 수
요성경공부 차량안
내와 교회 내 여러
부서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신 안수집사들을 위로하기위해 안수집사회에서
는 부부동반으로 5월 23일 토요일 오전부터 과천에 위
치한 서울 동물원내의 삼림욕장에서 야외회를 가졌다.

오전부터 이슬비가 내렸지만 해가 나면서 산책하기 아
주 좋은 날씨가 되었다. 주님께 감사!!

정성껏 준비한 싱싱한 방울토마토, 신선한 오이를 각자
받아들고, 먼저 도착한 1진과 나중 도착한 2진으로 팀
을 나눠서 30 여명이 삼림욕장으로 향했다.

맨발로 걷기에도 충분한 부드러운 흙길로 부부가 손을
잡고, 담소를 나누며, 교역자와 성도들 간의 화기애애한
웃음으로 산책했다. 아침부터 운무가 뿌려진 연초록의
청계산자락이 맑고 상쾌한 피톤치트를 내뿜으며 가슴
을 시원케 했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우리를 반기는 가
운데 10년은 젊어진 듯했다

맛있는 점심식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겨우 만류하고서
식사장소인 과천의 '꽃피는 산골'로 이동했다.

나중에 합류한 집사님 부부들과 인근 자연 속에 위치한
아름다운 식당에서 맑게 개인 하늘과 초록의 숲속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배움도 집사님이 준비해주신 맛난 점
심을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하였다.

이강환 목사님 기도와 회창님의 말씀이 있었고 우리들
은 성령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 안에서 하나
임을 확인하며, 앞으로도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 할 것을 다짐하는 즐거운 자리였다.

윤성진 안수집사